

86-0-258

統一文化심포지움
'86. 5. 23 ~ 24



統一文化指向과 言論의 役割

1986. 5

國土統一院

統一文化심포지움

86. 5. 23 ~ 24

統一文化指向과 言論의 役割



國土統一院

目 次

I . 統一文化指向과 言論의 役割.....	3
鮮 于 燁 (國土統一 顧問)	
II . 統一文化 視角에서 본 韓國의 言論.....	25
吳 鎮 煥 (漢陽大 教授)	
III . 統一文化 視角에서 본 北韓의 言論.....	45
李 相 斗 (서울市立大 教授)	

< 招請講演 >

I. 統一文化指向과 言論의 役割

鮮 于 燁
(國土統一 顧問)

目 次

1. 統一文化 論議의 必要性	5
2. 理念과 體制의 異質性	6
3. 統一3原則의 虛構性	8
4. 離散家族과 6·25問題	12
5. 假想統一	15
6. 統一文化	18
7. 言論의 役割	20

1. 統一文化論議의 必要性

單一民族이 國土가 南北으로 分단되므로써 四十年間 政治에서 風俗에 이르기까지 점차 異質化되어 왔으며, 앞으로 언제 統一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現實에서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하기 위한 統一文化를 모색하고 概念的으로 確立하며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作業은, 民族百年之大計를 위하여서도 焦眉의 緊急한 重大課題라고 할 것이다. 歷史的 狀況은 예기치 않은 때에 突然變異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民族이 언젠가는(百年後건, 千年後건) 統一되어야 한다는 것은 民族史의 必然的 歸結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누구도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統一을 위한 文化의 同質性을 찾으려는 文脈에서 言論의 役割을 검토해 보는 것은 有益한 일인 것이며, 그것은 오늘날의 言論이 오늘날의 現實狀況을 보는 視野를 넓혀주는 점에서도 아주 有益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南北의 異質化는 政治理念과 그 體制를 달리하면서 부터 시작되어 온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理念과 體制가 同質性을 잃었다는 것은 곧 文化가 異質化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理念과 體制의 異質性

편의상 여기서는, 南쪽의 理念을 自由民主主義라고 하고, 北쪽의 理念을 共產主義라고 표현한다.

거기서 가장 쉽게 兩者의 差異를 말한다면, 自由民主主義는 多樣性を 그 特徵으로 삼는데, 共產主義는 單純性を 그 特徵으로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分野의 多樣化를 本領으로 삼는 自由民主主義 體制에서는 異質化된 南北文化의 止揚으로서의 “統一文化”를 모색하고 確立하는 작업이 可能하고 容易하다고 할 수 있으나, 共產主義社會建設을 人類社會의 最高·最終目的으로 삼는 共產主義體制에서는 社會 모든 分野에 걸쳐 철저히 體系화된 共產主義理論의 一絲不亂한 실천이 강요되고 있으므로, 이른바 「南朝鮮 革命路線」에 의하여 南쪽 地域이 共產化되는 경우 이미 確立되어 있는 北의 共產主義文化에 編入될 뿐 (같은 文脈의 共產主義文化만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民族同質性 回復의 “統一文化”는 모색될 수도 確立될 수도 없는 考慮 事項밖의 일인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現在 이른바 左傾文化라는 社會主義 傾向文化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革命」後 既存의 共產主義文化 속에 完全히 解消되고 말 것은, 소련이나 共產 東歐의 史實에 비추어 明若視火한 것이다.

이른바 同伴者 文化라는 것은 革命이 일어나 既成體制를 와해시킨 뒤에는 社會主義리얼리즘속에서 해소되는 것이 그 당연한 운명

이기 때문이다.

“統一”이라는 用語에도 문제가 없지 않는데 “民主統一”이라고 할 때는 “多樣性”의 견지에서나 “止揚”의 견지에서 타당할 수 있으나, “共產統一”이라고 할 때는 同義反覆의 重複語로서 言語上으로서도 無意味한 것이다.

왜냐하면 北의 共產主義者들에게는 南쪽 地域의 共產化가 곧 統一을 뜻하는 것으로서, 共產化와 달리 統一을 생각할 必要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異質化”라는 用語도 마찬가지이다.

北측의 思考方式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北의 異質化는 필연적인 歷史發展의 進歩的 變化이며, 南의 文化一切은 마땅히 배격·타파되어야 할 保守反動 文化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異質化를 北에 있어서는 窮極的으로 共產主義文化를 確立하는 最後勝利를 향한 過程에서의 變化라고 肯定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볼때 異質化를 걱정하고 同質性을 추구하는 南의 希求는 歷史의 革命的 進歩的 展開過程에서 消滅될 수 밖에 없는 階層의 感傷主義의 所致로서 階級的 疎外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는 沒落階級의 서글픈 黃昏의 노래일 뿐인 것이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共產主義 原則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最高善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모든 協商에 있어서 때로 戰術的으로는 讓步하는 일이 있지만 戰略的으로는 결코 讓步하지 않는다. 그것은 러시아革命後, 이제까지의 그들의 協商 歷史가 중

명하고 있다.

더욱 地政學的으로 소련과 中共에 근접해 있다는 有利한 조건과
분에 넘치는 막강한 軍事力을 유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날로 증대
시키고 있는 北의 共產主義者들이 우리가 내세우는 “民族的 良
心”에서, 民族이 共有할 民族 同質性을 찾는 “統一文化”를 진지
하게 생각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들이 지니는 것은 좋게 보
아서 “階級的 良心”으로서 民族文化에의 “止揚”에 있어서도 우
리와 그들의 辨證法은 결코 같은것이 아니다.

3. 統一三原則의 虛構性

여기서 다시 한번 統一三原則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南北사이에 合意된 3原則은 周知하는 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渉을 받음이 없이 自主
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2)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반대하는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 3) 思想과 理念·制度의 差異를 초월하여 하나의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3原則을 하나하나 검토할 때 그 하나하나에 끌고루 盲點이
있어서, 北측은 얼마든지 우리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北측은 미리 그러한 계산을 하고나서 合意한 흔적이 있다.
아니 그랬던 것이 확실하다.

첫째, 外勢의 문제이다.

우리로서는 소련·中共·美國은 물론 주변국가인 日本까지를 外勢로 생각하고, 韓末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그 어느 강대국에도 의거하지 않거나, 어느 강대국의 干渉을 받지 않는 民族的 自主에 의한 해결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무지개같은 幻想으로 너무도 오늘날의 複雜하기만 한 國際關係를 무시한 非現實的인 悲願에 속한다.

그러나 北측은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것이 분명하다. 그들에 있어서 外勢는 美國이며, 어쩌면 日本도 包含될지 모르나, 소련과 中共은 外勢가 아니다.

그들은 그 뿌리에 있어서 같은 共產主義를 신봉하는 소련이나 中共을 “同志”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理論的인 必然이요, 實際이다.

그들이 때로 자기들 内部鬭爭에 있어서나, 利害關係上, 소련과 中共사이에서 자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外勢意識과는 다르다.

그들이 嚴然히 현실적으로 外勢인 소련이나 中共에 의거하고 있으며, 실제로 干渉을 받고 있으면서, 또한 만약의 경우는, 그들에게 의거하거나, 간여해 볼것을 기대하면서(6.25 당시의 소련·中共과의 關係를 보라), 對外的으로는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渉을 받고 있는 것이 결코 자기네들이 아니라, 南의 大韓民國이라고 내세우는 데는, 形態上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이다.

그것은 美軍의 韓半島(南韓地域)駐屯이다.

그들은 그점을 내세워, 大韓民國은 外勢에 의거하고 있고, 따라서 外勢의 干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世界를 향하여 宣傳하고 있는 것이다.

板門店の 軍事停戰委員會에서 대치하고 있는 南北의 代表는 人民軍과 美軍이라는 점도 그들 선전의 좋은 미끼가 되어 있다. 그점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 1항에 대한 해석과 주장의 진의는, 南北이 統一하기 위하여는 우선 美軍부터 南韓地域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民族이 自主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軍事同盟國인 소련과도 中共과도 鴨綠江과 豆滿江이라는 一衣帶水의 간격을 두고 근접해 있다는 地政學上的 有利한 점을 은폐하는 狡智를 戰術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武力行使와 平和的 方法의 문제이다. 戰爭과 平和를 대조적으로 생각할 때,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南北간에 戰爭 手段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 논리이다. 이미 北측이 6·25에 戰爭手段을 사용하여 韓半島 全域의 共產化를 꾀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제 2항의 平和的 方法이 문제되는 것은 과연 北측이 “革命的手段”을, 平和的 方法에서 제외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北측은 革命的手段을 武力行使로 생각하느냐 않느냐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國際政治學上的 用語로 定立되고 있는 것처럼 “革命의 戰

爭化”와 “戰爭의 革命化”는 같은 文脈속의 同義異語로 써지고 있는 것으로서 革命手段에는 반드시 武力行使가 따르는 것이다. 革命을 위하여는 革命手段이 먼저 올수도 있고, 武力行使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래는 武力行使가 優先인 경우가 차차 흔해 가는 추세이다.

北측의 일련의 언동을 살필때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統一三原則에 合意할 당시나, 이른바「南朝鮮 革命政策」을 對南政策의 不變의 原則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統一三原則의 제 2 항에서 武力行使를 6·25 와 같은 全面戰爭으로만 규정하고, 平和的方法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革命手段만은 그 어느쪽에 속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은폐해 두었다는 점에 대하여 결코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세계는 제 3 항이 完全한 거짓말이며, 속임수라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는 그가 신봉하는 사상과 理想을 생명으로 하며, 죽음으로 그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들 共產主義者가 더 잘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思想과 理想·制度」를 어떻게 「超越」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그것은 共產主義者로서 명백한 거짓말이다. 정녕 思想과 理想과 制度를 초월할 수 있다면, 그순간 共產主義者는 共產主義者가 아닌 것이다.

共產主義者가 「民族」의 이름아래 「共產主義」를 포기하는 경우 그들은 사상적 배신자 또는 계급적 반역자로서 처단하는 것이 상

레이다.

民族的 大團結도 역시 그렇다. 해방직후 階級을 초월한 民族的인 大團結이 民族的 總意일 때, 社會의 어두운 그늘에서 계급적 分열을 劃策하고 나섬으로써, 강대국에 의한 國土分斷을 용이하게 했던 것이 바로 共產主義者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統一三原則에 대하여 그들이 풀이할 것인 戰術的 意圖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러시아 共產革命後 어느나라, 어느민족에 있어서나 統一된 상태를 깨고 國民을 階級的으로 分裂시킴으로써 國民意思를 兩分하고, 革命을 일으켜, 어느 한쪽을 말살하거나 억압하는 상태에서 다시 “統一形態”로 社會를 재조직해 온 것이 共產主義者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統一三原則은 北측이 그런 文脈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속셈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 離散家族과 6·25 問題

統一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고 배제할 수 없는 것은 北에서 南으로 온 離散家族의 문제와, 6·25 전란으로 同胞이 相殘한 문제이다.

南北雙方을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南에서 北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北에서 南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아

도적으로 北에서 南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南에서 北으로 넘어간 사람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南에서 北으로 넘어간 경우는 思想的인 것이 그 주된 원인이 있으나, 北에서 南으로 넘어온 경우는, 思想的인 문제보다 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절실한 生活形態가 그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思想(이데올로기)이 더 중요한 것인가 人間生存 自體, 삶자체가 더 중요한가 하는 評價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절실한 것은 生活自體일 것이다.

(이 점은 統一文化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宗教와 信仰의 문제로 넘어온 사람도 많지만, 信仰도 이데올로기보다는 生活와 관련시키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런데, 統一 및 統一文化를 생각하는데 가볍게 보아서 안될 것은 越南한 離散家族들이 결코 단순하게 統一狀態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원래, 南쪽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統一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까닭에 지극히 當爲的이며 따라서 단순한 흠을 면치 못하는 반면, 월남가족의 경우는 자기 여러모로 개인사정이 개입하므로 대단히 실제적이며, 복잡다기한 흠이 없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월남한 사람들은 한때 北에서 共產主義 實際政治를 몸소 經驗한 까닭에, 南쪽에서 共產治下의 生活를 經驗하지 않았던가 경험할 수 없었던 세대처럼, 쉽게 「한 핏줄의 한 民族인데 서로

만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된다」는 식의 순박한 생각은 할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北에서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말쟁이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共產主義 기피증으로는 애초부터 한자리에 對坐조차 할 수 없게된다는 점도 아울러 認識해야 할 것이다.

(統一을 두려워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는데, 以北에 妻子를 남겨두고 월남한 사람이 再婚한 아내의 경우가 그대표적인 것이다.)

6·25는 統一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소로서 두고두고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同胞間에 있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광범위한 敵對感을 남겼기 때문이다.

相對的으로 생각할 때 國軍의 戰死者 遺家族으로서 北과 和解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寬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 反對되는 北에 있어서의 경우도 그 심정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西獨과 東獨關係를 여러모로 부러워한다. 물론 兩獨關係는 우리의 南北關係보다 부드럽고 友好的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差異는 獨逸은 분단후 이제까지 서로가 平和狀態를 유지해 왔고, 우리는 未曾有의 同胞相殘이라는 피비린 戰爭을 치루고, 怨恨을 품고 지내왔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그 同族相殘의 元凶 이 執權하는 集團을 상대로 民族和合과 統一을 논하는 것부터 無意味하다는 논의에도 一理가 있다.

그런데, 이점에 관하여 過去는 차치하고, 現在에 있어서나 未來에

있어서 憂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하는 同族相殘을, 그들이 과연 反民族的인 同胞相殘으로 罪惡視하는 意識의 바탕을 사고의 밑에 깔고 있는가 않는가의 여부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6·25를 「祖國을 방어한 戰爭」 또는 푸로레타리아와 부르쥬아反動간의 戰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은 그들이 표면적으로나마, 6·25는 南쪽에서 도발했다는 것으로 内外에 宣傳하고 있는 것은, 6·25 同胞相殘을 罪惡視까지는 안하더라도 다소나마 是가 아닌 非로 여기기도 한다는에서 일말의 救援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감상적 오판이 될 것일까.

5. 假 想 統 一

어느날 전혀 예기치 않은 계기에 의하여 南北이 統一되었다고 假想할 때, 사람들은 먼저 當惑하고 다음에는 困惑을 느낄 것이다.

그 政治形態는 과연 어떤 것일까, 金融經濟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學制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國軍과 人民軍은 統合될 것인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 吸收될 것인가 등등.

解放直後の 이른바 人民共和國의 組織에 있어서의 안배의 虛實만 상기 하더라도 假想統一 狀況은 거의 人智가 가능한 想像의 限界를 넘어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統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統一은

不可能하다는 비관적인 결론밖에 추출되지 않는다.

가장 간단한 統一方法은 武力에 의하여 南北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完全히 制壓하는 戰爭方式이다. 그래서 해방후 南쪽에서도 無責任하고 허황된 北進統一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고, 北쪽에서는 실제로 武力行使의 戰爭手段으로 韓半島 全域의 共產化를 꾀했던 것이다.

同族相殘의 6·25는, 한때 北측에게 韓半島 共產化의 꿈을 갖게 했고, 다음은 反擊에 나선 南측에서 韓半島 國土統一의 꿈을 갖게 했으나, 결국 同族간에 깊은 怨恨만 남기고 勝者도 敗者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제 다시 武力行使에 의한 同族간의 戰爭을 일으킨다는 것은 民族간의 倫理問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民族自體의 生存問題를 위협하는 悲劇으로 변하게 되었다. 雙方이 간직한 現代的인 武器 體制의 破壞力은 6·25에서 發揮되었던 破壞力の 類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의 統一은 平和的 方法에 의할 수 밖에 다른 方法이 없게 되었다.

게다가 統一은 民族史의 必然인 까닭에 統一을 도외시하는 것은 民族的 公지와 良心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능하고 유일한 手段으로서의 平和的 方法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不可能하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으니 統一論議는 進退維谷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假想統一은 6·25 당시의 다음과 같은 경험에서 한낱 白

日夢으로 돌릴 수는 없다. 아닌게 아니라 科學的 成果도 假想의 產物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6·25 당시 反擊으로 國軍과 유엔軍이 38 線을 돌파하고 鴨綠江과 豆滿江을 향하여 진격하면서 國土統一을 목전에 바라보게 되었다고 착각했을때. 韓國政府와 軍部가 가장 당황한 한가지는, 38 以北全域을 占領한 연후에 그 지역을 어떤 行政形態로 다스리며 거기 어떤 經濟政策을 쓰느냐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政府의 어느 부처에서도 그때까지 統一 연후에 38 以南地域을 어떤 形態로 다스리느냐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물론 고려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國防部政訓局에서 부랴부랴 有能한 靑年들을 모집하여 급조한 것이 6개 中隊로 편성된 政訓大隊였던 것이다.

以北의 6개 道에 1個 中隊씩 파견하여 주민들을 선무공작 하는 한편, 以南의 地方行政體制와 비슷한 社會組織을 만들어 우선 自治的으로 운영케 하기 위한 것이 그 目的이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고 거친 教育訓練 끝에, 美軍政下의 以北各道에 兵力을 파견 하려하였을 때는 이미 中共軍 介入으로 말미암아 政訓大隊兵力은 配定된 任地에 미쳐 到着하지도 못하고 파견중도에 南下 後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녕, 統一을 歷史的 必然으로 民族百年之大計로 생각한다면, 可能·不可能을 도외시하고 부단히 統一方法을 모색하고 확립하는 作業을 계속해야 할뿐 아니라, 統一然後에 對備하는 各種政策까지 樹立

해 놓는 執念어린 努力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統一論議는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하며, 統一方案은 부단히 모색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6. 統 一 文 化

統一에 관한 연구 가운데 우리로서 가장 생산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文化的 異質化를 막기 위한 同質性 回復을 주축으로 하는 統一文化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그것은 설혹 統一이 요원한 장래로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文化를 한 地域의 文化로 치우치지 않는 多樣하고 유연성있는 民族文化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有益한 것이다.

수천년간의 民族離散을 거친 유대민족이 오늘날 新生이스라엘로 民族統一의 核心을 이룩한데는 탈무드라는 經典이 있었다.

비록 우리에게 탈무드같은 經典이 없다하더라도 單一民族의 뿌리는 든든한 것이며 수천년간 共有해온 文化가 있다는 것은 “統一文化”를 확립하는 충분한 可能性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南北간에 思想과 理念·制度는 다를지 언정 말과 글자는 엄연히 같이하고 있고, 고유의 風俗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異質化되지 않았으며, 民俗 역시 南北 어느쪽에서도 존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民族文化발전을 위하여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물론 文學藝術의 각 分野에 걸쳐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지 않

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그 거리는 더욱더 넓어져만 가는 진행현상은 부정할 수는 없는 하나의 悲劇이다.

특히 文學에 있어서 北側의 詩나 小說의 集體作 現象은 個人의 個性과 創意力을 輕視 또는 無視하는 풍조로서 지극히 우려되는 경향이며, 文學의 독립성과 文學性이 존중되기보다 「黨을 위한 文學」이라는 政治的 效用性이 重視됨은 물론, 나아가 個人崇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런 현상도 巨視的 眼目으로 볼 때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것만은 결코 아닌 것이다. 말과 문자가 근본적으로 同質性을 유지하는 한(다소 異質化한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一時的인 現象은 風俗과 같은 것으로서 時代狀況이 바뀌면 政治이데올로기의 것이나 個人神格化的인 요소는 삼시간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말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제 2 차대전이전의 이웃 日本에서 한때 극성을 떨었던 天皇神格化와 軍部禮讚 그리고 侵略的인 아세아主義가 敗戰과 함께 거의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사실을 상기하거나 獨逸에서 히틀러의 카리스마와 “피와 땅”에 근거한 나치文學이 역시 패전 후 삼시에 사라진 것을 보면 납득이 갈 것이다.

지금 소련文學은 아직도 이른바 社會主義리얼리즘이 그 主流를 이루어 黨의 文學으로서 命脈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후루시초프의 소련공산당 제 20 차 黨大會에서의 스탈린批判을 계기로 크게 그 흐름을 바꾸어 솔제니친 등의 전통적 러시아文學에의 回歸과 더불어 크게 變質하고 있다는 사실은 政治이데올로기라는 시멘트 사이를 들추고 文化는 人間自然의 文化의 싹을 움트게 한다는 점을 실감케 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文學과 藝術이 政治的 效用性으로 그 가치가 평가될 때 일체의 文化는 그 생명을 잃는 법이다. 생명을 잃은 文化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個性에 의한 多樣性的 文化를 추구하는 자체가 文化本然의 바람직스러운 形態로서 自然·必然的이며 人間的인 文化를 키우는 것이 곧 統一文化를 確立하고 民族文化를 제대로 發展시키는 길이 아닌가 싶다.

어느나라, 어느民族의 歷史를 보더라도 政治形態의 변천이나 民族分裂, 國土分割과는 別途로 文化는 독립적인 그 자체로서 自轉하면서 公轉하는 軌道를 거쳐왔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것이다.

政治가 文化를 결정한 과거와는 달리 現在와 未來는 文化가 政治를 결정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 前提에서 볼 때 오늘날 統一論議에 있어서 가장 現實的인 동시에 가장 귀중한 것이 “統一文化”에 관한 논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統一文化란 달리 표현하면 바람직스러운 未來의 民族文化라고 할 수 있다.

7. 言論의 役割

統一文化를 생각할 때 그를 위한 言論의 役割이 重大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미 過去之事에 속하지만 “統一”은 그 論議조차 忒부視된 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므로 統一에 관한 論議가 言論媒體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歷史는 그리 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忒부가 깨뜨려지고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言論은 그 論議에 있어서나 그 論議를 위한 南北接觸을 다루는데 있어서 眞率했고 慎重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점에 있어서 言論은 비록 國內문제에 있어서는 反應을 달리했을지언정 對北態度에 있어서는 一致된 對應姿勢로 一貫함으로써 大過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 統一論議에 있어서 言論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心情的인 感傷主義와 거기 편승하는 商業主義일 것이다.

더욱 앞으로 해방직후의 左右鬭爭과 6·25를 체험하지 못한 世代가 國民의 主軸을 이루어가는데 따라 民族感情에 터한 感傷主義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心情的인 次元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國內政治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對北態度 특히 南北統一論議에까지 작용한다면 그것은 심상치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感傷主義는 때때로 國民感情에 나타났고 일부 政治人들의 性向에 따라 言論에까지 반영되는 일은 결코 없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해방직후의 左右鬭爭이나 6·25의 체험이 없다면 기성세대와 체험이 무체험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대

한 이론적인 극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했는데 실제로 체험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철저히 극복되지도 못한 흠이 있는만큼, 앞으로 言論은 그 자체가 感傷主義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은 물론 冷徹한 理性으로서 그동안 一貫해온 態度를 견지함으로써 大過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言論이 앞으로 주의해야 할 한가지는 報道에 있어서나 論評에 있어서의 眞率性を 잃고 興味本位로 報道하거나 論評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이 言論의 商業主義와 결부될 때 어떤 危險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不問可知인 것이다.

두말할것 없이 民族史의 必然을 위하여 統一을 향한 “悲願”은 “念願”으로 승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民族的 念願은 “統一文化” 곧 “바람직스러운 民族文化”를 指向하는 에너지로서 文化 各分野에서 즐기치게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統一文化에의 指向이 民族文化 形成이라는 작업외의 중요성을 띠는 것은 統一文化 指向이 궁극적으로 民族의 平和統一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文化에 대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人間의 暴力本能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統一文化”라는 “바람직스러운 民族文化”의 틀을 만들어 北側에 제시하고, 民族的 立場에서 그 文化의 共有를 강요한다는 文化的인 에너지의 소모는 증오와 원한에 근거한 각종 暴力使用을 억제하거나 暴力本能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役割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見地에서 우리 言論이 앞으로 정력적으로 “統一文化”에 관하여 힘을 기울이는 것은 文化發展의 側面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國民으로 하여금 南北關係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國內政治를 생각하는 태도에 心理的인 좋은 영향을 줄 것이며, 國民的인 氣質을 非暴力的·平和的으로 이끌어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 틀림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統一文化”에 대한 “指向”은 하나의 “國民意志”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言論이 그에 대하여 關心을 가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關心을 기울일 때 方法은 스스로 抽出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言論에 대하여 회의물 품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言論에 대한 회의란 어느 社會에도 있는 것으로서 우리 言論이 독자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비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다소의 회의물 그림에 깔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처럼, 言論에서 다루어지는 세간사의 보도를 事實로 믿을 뿐 아니라 眞實로 믿는 경우도 드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言論은 言論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동시에 言論의 役割의 重大性을 痛感하게 될 것도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言論의 自重自愛와 健闘를 빈어마지 않는 所以然이다.

Ⅱ. 統一文化 視角에서 본 韓國의 言論

吳 鎮 煥
(漢陽大 教授·新聞學)

目 次

1. 머 리 말	27
2. 統一의 歷史的 敎訓	29
3. 統一文化 視角에서 본 韓國의 言論	36
가. 統一文化 視角에서 본 問題點	38
나. 統一文化 창달을 위한 言論對策과 提案	40
4. 맺 는 말	43

1. 머리말

現代言論은 現代社會의 產物이며 歷史와 文化의 遺産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言論은 그 나라의 特殊性에서 생겨나는 狀況的 條件의 影響을 받게되며, 言論의 役割이나 課題는 歷史의 맥락이라는 側面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言論이라는 窓을 통해 歷史와 文化를 把握하기보다 그 나라의 歷史와 文化라는 흐름속에서 그 나라의 言論을 把握함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言論을 論함에 있어서는 항상 國土의 分斷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와 分斷을 종식시키려는 統一의 念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힐 必要가 있다.

解放이후 41年, 大韓民國의 開國이후 38年, 거슬러 올라가 보면 日帝에 나라를 빼앗긴지 76年이라는 過去의 歷史的 경험을 바탕으로 깔고 統一文化를 거론해야 하며 그러한 視角에서 大韓民國의 言論을 評價하고, 問題點을 分析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논의함이 옳을 것이다.

日帝治下에서 韓半島는 서울을 中心으로 經濟, 社會, 文化 活動이 展開되었었고, 日帝는 總독정치를 하였었다. 따라서 韓半島의 地政學的 關係에서 볼때 現在의 北韓은 서울中心의 變두리였으며 종속적 關係에 處한 韓·中, 韓·蘇 國境의 變방지대가 대부분이었다.

解放이 되면서 美·蘇 兩軍의 南北韓 진주로 인하여 南北韓의 關係는 종속적 關係에서 敵對的 關係로 變질되기 시작하였고 1950年의 6.25 戰爭으로 이 關係는 定着되고 말았다. 1972年부터 南北韓의

對話의 窓이 열리면서 敵對的 관계는 실질적으로 相互認定하는 相對的 關係로 漸漸히 變하고 있다고 보아도 잘못은 없다. 더욱이 大韓民國의 積極적인 平和統一政策과 平和的 統一指向의 강력한 의지는 南北韓의 高層방문단의 상호방문을 實現시키는데 까지 成功하였다.

그러나 41年이라는 긴 세월은 새로운 世代의 등장을 가져왔고 서로 다른 哲學, 思想, 政治體制, 經濟構造, 社會生活, 文化內容, 言論體系를 형성하였으며, 人間의 思考能力을 비롯하여 衣, 食, 住 生活를 바꾸어 버렸고, 생각하는 방법과 내용까지 서로 다른 方向으로 치달게 하고 있다.

解放後 世代들은 南北韓의 同質性에 대한 歷史的 經驗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南北交流의 體驗이 거의 없기에 비록 같은 피를 타고 났으며, 같은 言語를 쓰고, 같은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들 너무나 모르고 있다.

오늘의 主題인 統一文化란 바로 이러한 歷史的 遺産과 현실을 바탕으로 깔고 있음을 깨닫고 문제를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6.25 戰爭이라는 엄청난 歷史的 經驗을 가지고 있기에 武力이 아닌 平和的 統一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統一文化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研究發表하였으나,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筆者가 참고로 할 수 있는것도 大韓民國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에 국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발표하는 內容도 자료라는 面에서는 큰 가치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시인한다.

그래서 筆者는 學術論文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統一文化와 言論에 대한 個人的인 意見의 개진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討論의 한 길잡이가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고 평소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한다.

2. 統一의 歷史的 敎訓

歷史의 敎訓은 엄숙하다. 統一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時代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統一이라는 歷史的 事實은 眞實이며 統一을 이룩한 당시의 상황은 변함이 없다. 다만 後世의 人間들이 자료의 궁핍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統一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를 뿐이다.

新羅의 統一과 高麗의 統一이라는 歷史的 經驗과 外國의 많은 統一 經驗을 살펴보면 국토의 分割이나 統一은 한 自然人的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時代의 人間的 力量과 自然의 調和와 歷史的 統一 상황이 조성되고 結集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大드라마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統一이라는 서사시적인 드라마는 政治理論이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도히 흐르는 歷史의 흐름속에서 이루어지는 歷史的 週期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歷史의 循環理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生死가 태어남과 成長과 죽음이라는 일정한 人生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歷史는 바로 이러한 人間史의 기록이기에 歷史는 人間性의 本質과 깊은 관계가 있고, 統一도 그러한 意味에서 週期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分割과 統一이라는 面만 살펴 보아도 國土分割이 解放後 外國人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統一이라는 상황조성에 美·蘇라는 分割당사자와 또 이들과 관계가 있었던 中·日이라는 나라가 음양으로 얽혀 있으며 더우기 南北이 他意에 의한 分割이후 3年間이라는 긴 세월이 걸쳐 戰爭을 치루어 相互間에 증오의 感情이 아직도 엄연히 存在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최소한 이러한 韓半島 統一과 관련된 주변국가의 상황과 韓半島의 主人인 韓國人 相互間의 感情의 처리가 이루어지기 前에는 統一은 現實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理想的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주변정세의 변화와 感情處理는 人爲的이라기보다 오히려 自然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人爲적으로 이를 촉진하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는 힘보다 오히려 時間이 더 중요한 役割을 하며 그 時期를 歷史의 맥락에서 짚어 볼 必要가 있다고 믿는다.

人間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듯이 人間이 이룩하는 文化에도 限界가 있고 文明에도 限界가 있다. 人間의 生命은 有限하며, 政治權力은 「權不 10年」으로 表現되고, 한 나라의 國運도 興하면 반드시

亡한다는 事實을 歷史는 일깨워 주고 있다. 이 너무도 分명한 事實들을 人間은 空氣를 마시고 살면서도 이를 느끼지 않듯이 歷史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歷史的 教訓을 살펴보지 않으려 한다.

人間은 孕胎와 出生, 成長과 婚姻, 子女生産과 家族構成, 子女分家, 出嫁와 老衰 그리고 死亡이라는 “라이프 사이클”(Life Cicle)을 거치고 있으며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은 엄숙한 大自然의 攝理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듯이 人間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社會 現象에는 生成과 消滅이라는 과정이 있다. 興함과 亡함은 이러한 大自然의 攝理로 理解해 볼 必要가 있다.

한 自然人이 그러하듯이 한 집안도 3代를 못가 名譽와 權力과 富를 잃든가 또는 얻는다. 이것은 人間이 代를 물려가면서 優性을 유지하고, 能力과 執念을 가지면서 運을 타고 날수는 없다는 것이다. 절대 王權이 王權維持를 위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대로 女子를 골라서 婚姻하고, 뜻대로 行動하고, 生活하면서도 一定期間을 넘길 수 없는것은 人間 스스로 어쩔수 없는 能力의 限界가 있음을 意味한다.

이러한 人間이 사회를 일구고 나라를 세우는 한, 人間의 國家는 興하고 亡함을 피할 수 없다. 亡하지 않는다해도 國力の 융성함과 쇠진함은 週期的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마치 어려운 집안에서 몸을 일으켜 世上에 이름을 떨치다 그외 子息代에 가서는 쇠하고, 孫子代에 가서는 平凡한 사람들로 돌아가듯이 한 나라도 歷史에서 살펴보면 興할 때와 衰할 때가 있다.

한 나라를 創業하면 이를 政治, 經濟的으로 定着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社會的 安定과 文化的인 發展이 뒤 따른다. 이러한 作業이 끝난 후에야 그 時代의 黃金期가 오며 뒤를 이어 太平聖代라고 할 수 있는 安寧과 平和의 守成 時代가 온다. 人間은 이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여 不正과 不法을 자행하며 어느 時期가 지나면 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時代는 어지러워진다.

群雄이 할거하고 도적떼가 일며 民生은 도탄에 빠진다. 새 時代를 여는 英雄이 나타나 나라를 統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創業의 깃발을 높이 든다. 이러한 歷史發展의 과정이 歷史에 特히 東洋史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中國史를 볼 때 夏, 商, 殷, 周, 春秋戰國時代, 秦, 漢, 隋, 唐, 宋, 元, 明, 淸, 中共을 비롯하여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진 나라들을 보면 創業에는 成功하였으나 定着에 失敗하여 當代나 2代에 亡한 나라들이 수없이 많으며 創業과 定着에 成功하였을 때, 비로소 100年을 넘기고 守成與否에 따라 300年 가까운 세월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秦(BC 221 創業)과 隋(581 - 618)가 創業엔 成功하였으나 定着에 失敗한 경우라면 元(1260 - 1367, 107年間)은 守城에 失敗한 경우이고 唐(618 - 907, 289年間), 宋(960 - 1279, 319年間), 明(1368 - 1644, 276年間), 淸(1616 - 1911, 295年間)은 創業과 定着과 守城에 成功하여 命을 다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中國大陸이 統一되고 分割되고 다시 統一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나라가 쇠하여 혼란기에 접어들고 群雄이 할거하다가 再統一되는데는 30 ~ 60年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있음을 본다. 中國大陸

의 경우는 再統一되는때는 當代에는 어렵고 2代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中共도 1911年 淸이 亡한후 38年만인 1949年에야 中原을 統一한 후 37年이 지난 지금까지 定着作業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中國史의 教訓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半島라는 地政學的 상황과 大陸의 中國과 大韓海狹 건너편에 있는 海洋國 日本과의 관계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新羅가 三國을 統一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여러나라로 分離되어 있었다. 高句麗 (BC 37 - 668, 28代 705年間)와 百濟 (BC 18 - 660, 31代 678年間)를 新羅 (BC 57 - 935, 56代 992年間)가 唐의 힘을 빌어 統一하였으나, 新羅는 그 이전에 駕洛 (BC 42 - 532, 10代 491年間)과 大伽倻 (BC 42 - 562, 16代 521年間)등 주변국가들을 統攝한 歷史的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渤海 (BC 699 - 926, 14代 228年間)는 大陸國家인지라 228年の 命을 다하고 中國史에 統攝되어 버렸다. 高麗 (918 - 1392, 34代 475年間)는 後三國을 統一하여 475年을 이어오다가 朝鮮의 開國과 함께 亡하였고 朝鮮 (1392 - 1910, 21代 519年間)은 日本帝國에 依하여 亡하고 만다. 그후 35年間 나라없는 서러움을 겪었고 2次세계대전 이후 나라는 南北으로 分斷되어 41年이란 세월이 흘러 갔다.

統一新羅 말기에 後百濟 (892 - 936)와 後高句麗 (901 - 918)로 分割된 44年間の 歷史的 경험후 再統一되었고 또다시 1000餘年만에 南北 (1945 - 現在)으로 分斷되는 쓰라림을 맛보고 있다.

이러한 歴史的 事實을 分析해 보면 中國大陸은 帝國의 週期가 300年 前後이고 한 帝國이 亡하고 새로운 帝國이나 나라가 일어나는데 30~60年の 세월이 걸렸다면 韓半島는 500年 前後의 王朝 週期를 가지고 있으며 分離 또는 分斷이후 再統一되는데 40年 前後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週期說을 理論으로 主張한다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生命이 有限하고 社會現象이나 勢力이 有限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에서, 그리고 國家形成과 쇠퇴를 時期的으로 把握해 보자는 뜻으로 거론했다.

韓半島의 경우는 이러한 週期性이 王朝의 興亡과 中國大陸의 興亡成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事實을 統一의 歴史的 敎訓으로 수렴할 必要가 있다.

中國에 새 나라가 일어나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中國統一의 力學的 관계에 따라 韓半島에 새 나라가 들어서고 있으며, 韓半島의 王朝週期가 大陸의 帝國週期の 2배에 가깝기 때문에 大陸의 帝國創業以後 거의 예외없이 韓半島에 대하여 軍事的 시위를 하거나 派兵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重視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帝國形成에 필요했던 막강한 軍事力을 자연스럽게 단시일내에 소모시켜 버리는 手段이 되는 동시에 變방을 다진다는 뜻에서 中國으로서 는 合理的인 方法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唐이 일어나면서 統一新羅가 이루어지고, 唐이 亡하고 宋이 일어날때 新羅가 亡하고 高麗가 일어나며, 元이 일어날때 高麗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元이 亡하고 明이 일어날때 高麗가 亡하고 朝

鮮이 일어났으며, 明이 亡하고 淸이 일어날때 丙子胡亂이 일어났고, 淸이 亡할때 朝鮮도 亡했다. 그리고 大韓民國의 獨立과 中共의 統一은 거의 같은 時期에 이루어졌다는 事實도 결코 우연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이것은 必然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國家의 흥망성쇠와 分割과 統一, 그리고 大陸과 韓半島의 地政學的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豫測할 수 없다. 그러나 分명한 것은 흥망성쇠의 週期的인 변동과 우리나라 統一과 大陸은 關係가 있다는 事實이다. 한 自然人的 命이 있듯이 國家에도 命이 있고, 分斷되고 統合되는데는 自然的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人間의 能力으로 어쩔수 없는 時期가 있다는 점을 認識해야 한다. 國家 統一의 歴史的 敎訓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家興亡에는 週기가 있으며 週期間의 間격의 차이는 있으나 흐름에는 별 차이가 없다.

둘째, 한 國家가 亡하고 새 나라가 일어나는때는 그대로 계승하는 경우(朝鮮이 高麗를 引受하여 계승)도 있으나 他國의 침략을 받는다든가 自體分割하였다가 再統合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상당한 시련과 時間을 必要로 한다.

셋째, 韓半島의 國家形成과 分割, 分斷 그리고 統一은 中國大陸과 밀접한 關係가 있었다.

이러한 敎訓을 事大思想이나 運命論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自然의 條件과 人間의 能力의 限界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統一問題를 分析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人間의 無力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할지 모르나 歴史的

事實은 엄연한 事實이다. 歴史的 敎訓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앞날을 보다 지혜롭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統一文化를 歴史的 맥락에서 보려는 하나의 眼目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3. 統一文化 視角에서 본 韓國의 言論

統一도 따지고 보면 人間이 엮어 나가는 歴史的인 大事件이다. 그러나 이미 말하였듯이 人間能力의 限界와 自然條件과 時期라는 장벽은 하루 아침에 克服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統一을 念願하는 人間の 執念과 時間이 調和를 이루어 맺어지는 열매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統一을 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다만 南北間에 어느 쪽이 統一의 주도권을 잡고 統一以後의 韓半島를 이끌어 가느냐는 문제에 따라 회열과 공포가 교차되고 차라리 分斷된 상태에서 安寧을 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強力한 統一念願도 결국은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것이어야 하며, 피를 부르지 않는 平和的인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統一은 天下大勢와의 相關關係속에서 이루어지기에 「統一의 때」를 人間の 힘으로 할 수 있는 最善을 다하여 무르익게 하고, 앞당기게 하는데 專念해야 할 것이며 「그 統一의 때」를 忍耐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統一觀에서 바라보면 南北韓은 分斷以後 41年을 보냈으며 第2世代에 접어들어도 10년이 지났다. 政治, 經濟, 社會, 軍

事, 文化的인 여건도 解放以後, 그리고 休戰直後와는 너무나 다르게 변모하고 말았다. 南北韓이 서로의 體制를 定着시키고 새로운 時代를 전망하는 歷史的 轉換期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다.

言論은 이러한 時代的 상황을 統一文化의 視角에서 바라보고 報道하고 論評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건대 大韓民國의 言論은 朝鮮時代末인 1883年에 생겨나서 日帝治下의 抗日과 親日의 言論時代를 지나 1945年 祖國이 日帝로부터 解放되면서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左右翼의 理念鬭爭의 앞장에 섰던 일이 있는가 하면 大韓民國 建國과 더불어 新生共和國의 政論新聞이 되었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1950年의 6.25戰爭과 더불어 모든 言論은 戰時言論으로 돌변하였다가 休戰以後 政治的 煽情紙로서 맹위를 떨쳤고 1960年 4.19以後는 言論王國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의 強力한 言論活動을 전개한 일도 있었다.

그 다음해 5.16軍事政府의 出現과 함께 近代化 作業이라는 時代思潮를 등에 업고 企業言論으로 變하면서 言論은 新聞, 放送, 雜誌로 그 領域을 擴大하고 情報를 전달한다는 古典的 言論에서 情報를 확산하고 나아가 情報産業社會와 情報文化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社會的 기구로 되어가면서 새 時代 言論文化의 中樞가 되기 시작했다. 言論의 巨大한 모습은 1980年末 公營化의 시책앞에서 私企業 放送은 해체되고 新聞은 私企業形態로 존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韓國言論史의 흐름을 살펴볼때 우리나라 言論은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버렸다는 것을 쉽게 찾

아 볼 수 있다.

言論의 質과 內容이 달라지고, 구조와 기구도 달라졌으며 言論人들도 변하여 버렸다. 따라서 「統一」을 意識하고 바라보는 자세도 옛과 달라졌고 보도하고 論評하는 자세도 國民的 念願을 다룬다기보다 政治記事나 社會事件을 다루는 자세로 言論活動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強하게 받는다.

統一文化를 指向하는 言論의 자세가 아니라 단순 事件을 보도하는 자세로 統一問題를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그 例로 大韓民國의 日刊新聞과 放送社의 社是에서 「國土統一」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밝힌 言論社는 단 한곳도 없다. 이것은 가장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實際로는 關心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北韓을 訪問한 記者들의 보도내용은 大韓民國 國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기사를 다루듯 北韓을 보도하고 있는 것도 統一文化의 視角에서 볼때 보도의 戰術的 가치는 다소 있을지 모르나 統一이라는 戰略的 차원에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統一文化 視角에서 본 言論의 問題點

(1) 統一文化에 대한 言論의 關心 쇠퇴

統一을 念願하면서도 41年이라는 分斷史의 흐름에 따라 統一意志는 무디어졌고 統一에 대한 關心도 줄어들고 있다. 41년의 세월이, 그리고 2代에 걸친 世代의 變化가 統一指向的인 世代의 점차

적인 퇴진과 老化를 가져왔고 이것이 言論活動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2) 統一을 보는 言論視角의 變化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든가 「統一이 아니면 죽음일」 하는 式의 感性的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統一을 理論으로 따지고 科學的으로 分析하는 時代로 바뀌어 버렸다. 民族의 至上과제가 統一임이 分명한데도 지난 20여년간의 經濟成長을 통한 大韓民國의 社稷을 定着시키는 作業에 몰두한 나머지 統一은 이제 言論에서는 뒷편으로 미루어 놓은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3) 言論報道와 論評의 자세

統一問題를 보도하고 論評함에 있어 기본적인 方向과 內容과 質이 피상적이다. 이미 지적하였지만 統一問題와 北韓問題를 特種記事로 발굴하든가 興味記事를 쓰듯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統一問題는 韓民族의 生存과 번영을 다루듯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煽情的으로 보도, 論評하는 경향이 강하다.

(4) 統一問題에 대한 적극성 부족

이는 첫번째 문제로 지적한 關心度와 관계되는 일이긴 하나 關心보다 문제점이 많고 까다로운 과제라서 가능하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國家安保와 관련되고 反共의 圖是에 저속되는 性向이 있기에 어려운 문제는 가급적 손대지 않으려는 경향이 言論에 나타나고 있는것 같다.

(5) 反共政策과 言論活動의 限界

보도할 수 있는 것과 보도할 수 없는 것의 한계가 사실 모호

한 것이기에 言論活動의 限界가 설정되어진다. 反共인변도의 보도는 大韓民國의 國是에 따르는 것이며 體制擁護의 기능을 수행하는 言論의 基本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北韓과 관련된 統一問題는 일정한 테두리 속에서 보도하고 論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모든 言論에 共通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大部分이 그러하다는 것이며 一部 新聞은 統一關係 研究所까지 설치하여 研究하고 보도하고 있는 특수한 곳도 있기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問題點을 파악하기 위해 意識 調査를 하여 나온 結果도 아니기에 多分히 가설적이긴 하나 41年 間의 言論活動을 통해 볼때 타당성있는 가설로 여겨진다.

또 이 문제는 相對性이 가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그 정도를 正確히 수치로 밝힐 수는 없으나 문제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研究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나. 統一文化 창달을 위한 言論 對策과 提案

解放以後, 分斷以後 41年 間, 우리나라 言論은 統一文化와 北韓에 관한 言論活動에는 기복이 많았다. 解放이후 政府의 北進統一政策에 휘말려 北進統一을 외쳤고, 6.25 戰爭과 休戰이후 상당기간은 北韓과의 敵對關係속에서 滅共統一을 주창하는 武力北進統一主義로 일관하여 왔었다.

1972年 5月 2日 李厚洛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平壤訪問과 北쪽人士의 서울訪問을 계기로 7.4 共同聲明이 발표되면서 言論보도와 論評은 突變하였으며 平和統一을 강력하게 主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3年6月30日 KBS 離散家族 찾기운동은 世界放送史에 새로운 章을 열었으며 統一의 念願에 새로운 불을 붙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뒤이어 MBC에서 방영한 「凍土의 王國」과 최근의 「北으로 간 여배우」, KBS의 「지금 平壤에선」과 「나타리야」 등의 새로운 反共 프로그램은 北韓에 대한 關心을 더욱 크게 하였고 극적인 南北韓의 이산가족방문은 統一念願을 더욱 간절하게 하였다.

新聞에서 南北分斷에 관한 特輯을 잇달아 내었고 연속시리즈로 기획 보도하는 新聞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言論의 보도와 論評은 北韓에 대한 새로운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反共의지를 재확인하는에는 成功하였으나 統一文化를 형성하고 창달하는에는 오히려 역기능을 할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指向하는 平和的 統一은 異質化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同質化를 일깨워야 하며, 無理가 아니라 順理에 따라야 하고, 北에 대한 敵對感보다 오히려 同胞愛를 알세워야 한다.

이 어려운 作業을 反共의 틀속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言論의 所任이고 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言論의 役割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政府의 理解와 지원이 있어야 하고 言論에 대한 信賴가 있어야 한다.

(1) 言論 스스로 統一文化에 대하여 새로운 認識을 하여야 한다. 時代的 상황의 變化와 歷史의 맥락에서 볼때 平和統一에 대한 自信과 信念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야 하고 忍耐力을 가지고 努力하여야 한다.

(2) 統一에 대한 國民의 關心提高를 위해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운 企劃과 特輯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平壤의 活動에서도 統一 念願이 週期的으로 言論에 비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北韓에 대한 眞實보도를 과감하게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平壤 유치원 어린이의 말 한마디가 MBC 画面에 비치고 녹음기같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수백번 실시하던 反共教育보다 효과적이었다. 물론 편집을 하여야겠지만 北韓의 뉴스도 必要에 따라 과감하게 국내뉴스로 다루어 보는 것을 政府와 言論이 협의하고 검토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4) 南北韓의 記者交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統一文化 창달의 초석으로 삼고 言論關係 프로그램의 交換放映도 검토해 봄직하다. 協商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 언젠가는 成事될 수도 있으리라 믿는다.

(5) 統一文化에 대한 言論政策과 戰略的 보도와 논평에 대한 研究를 하여야 한다. 統一文化에 대한 보도에 있어 言論의 活動領域을 확대하고, 長期的 안목으로 統一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라 言論政策을 수립하고 統一戰略을 구상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南北韓은 人工衛星을 통해 同時放送하는 문제도 研究되어야 한다. 現在의 기술로도 충분히 可能한 문제이기에 關心과 努力여하에 따라 成事시킬 수 있을 것이다. 大韓民國의 力量으로 北韓에 自由의 바람을 불어넣는 데는 言論이 百萬大軍 이상의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 統一의 歷史的 敎訓을 重視하여 統一文化를 형성하고 이를 大衆化시키는데 尙장서야 할 것이다. 分斷後 3世代가 지나면 統一을 열망하는 人口層이 급속히 줄어들며 南北韓에 異質的인 文化가 형성되고 굳어지기에 지금이 統一文化 형성의 適期임을 意識하고 言論이 尙장서 統一文化의 共感帶를 형성하고 大韓民國은 물론 이를 世界化시켜 統一의 時期를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이제까지 統一의 歷史的 敎訓을 바탕으로 統一文化 視角에서 大韓民國의 言論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言論의 行動半徑이 좁고, 統一文化에 대하여는 同質性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異質性을 부추기고 있다는 事實이다. 統一文化에 대한 關心을 더 높이고 마음의 窓을 열 어 大凡하게 統一問題를 다루어야 하며, 自然과 地政學的인 관계속 에서 統一을 바라보면서 歷史의 맥락속에서 統一文化를 추구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分斷 41年을 지나온 지금 우리 모두가 꼼꼼히 생각해야 할 것 은 앞으로 20~30年을 現在와 같은 상태에서 보내 버린다면 統一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며, 南北韓은 定着의 단계를 지나 서 로의 體制를 굳혀 버릴 것이며, 統一을 갈망하는 解放前 出生者들 은 歷史의 뒷장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解

放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統一文化를 창달하는데 힘써야 하며 統一을 추구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統一文化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北韓도 우리의 祖國이며 祖國統一이 韓國人의 念願이라는 것을 言論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韓國人에게 알리고 이러한 念願이 새로운 世代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할 責任이 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새로운 世代의 등장으로 인하여 統一意志가 弱化되는 일이다.

비록 이것이 어렵고 人間의 能力을 초월하는 벅찬 일이라 해도 피해서는 아니 된다. 言論은 歷史的인 統一課業의 代물림을 위해 政府와 함께 共同보조를 펴면서 研究하고 努力해야 하며 이 課題를 能動的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統一文化 視角에서 본 北韓의 言論

李 相 斗
(서울市立大 教授 · 政治學)

目 次

1. 南北韓言論의 異質化現象	47
2. 北韓言論의 現況	52
3. 北韓言論의 機能과 役割	58
4. 北韓言論의 特質	63
5. 統一指向型 言論像의 摸索	67

1. 南北韓言論의 異質化現象

남북이 分斷된지 4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는 사이 休戰線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에는 '相異한 두 社會體制가 확립되기에 이르렀고, 相互競合과 對立·對決을 지속하고 있다.

美·蘇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國家利益추구를 위한 世界戰略과 “이데올로기” 정책에 기인한 冷戰構造와 冷戰論理의 影響으로 韓半島에 있어서는 「民族內部的 矛盾」이 「敵對的 矛盾」으로 변질·격화되면서 남북한 사이에는 異質化現象이 날로 深化되어 왔다.

민족의 一體性和 同質性을 깨뜨리고 나라의 民主的·平和的 통일을 가로막는 큰 障礙物인 이 異質化現象은 完化될 가능성 보다 惡化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겠으며, 여기에 우리의 더할 수 없는 憂慮와 고뇌가 있다.

日本帝國主義의 強압적 식민지支配와 교묘한 分離·同和政策下에서도 우리 민족의 同胞愛와 「愛國心の 貯水池」는 “맥균”의 지적처럼 굳건히 구축되어 고갈되지 않았던 것이다.¹⁾ 이처럼 異民族의 總督政治下에서도 지켜졌던 민족의 동일성이 그 속박으로부터의 解放을 계기로 허물어지기 시작할때에 역사적 “아이러니”와 민족적 비극이 있다고 하겠다. 그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解放이 나라의 統一獨立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로써 대립하는 두 체제를 출현시켰기 때문이다.

1) G.M. McCune, Korea Today, p. 28.

異質化現象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宗教生活·윤리도덕·歲時風俗·심지어는 思考方式과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進行·深化되고 있다. 南北韓言論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體制代辦 또는 體制保衛機構로서의 機能과 역할 때문에 그 정도는 더한층 심각하다고 하겠다.

모든 나라의 言論制度와 言論政策은 그 言論이 존재·기능하는 그 사회의 政治體制와 密接한 關係를 가질 뿐 아니라 支配的·統治的 “이데올로기”의 影響과 制約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南北韓言論 制度의 類型을 “윌버 슈람”(Wilbur Schramm) 등의 견해에 따라 분류한다면 韓國言論은 自由主義理論(The Libertarian Theory)에 바탕을 두고 있고 北韓言論은 “소비에트 코뮤니즘”理論(The Soviet-Communism Theory)을 따르고 있다고 보겠다.

이러하기에 南北韓言論을 단순히 平面的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北韓言論(공산주의국가언론)을 南韓言論이나 西方世界言論을 보는 視角과 기준으로는 그 實體를 정확히 認識·評價하기가 어렵다.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國家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理論的·實踐的 面에서 다같이 言論을 重用하며 黨·政權的 次元에서 언론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 점에서는 言論自由를 중시하고 「第4府」로서의 언론의 權能을 내세우는 韓國과 北韓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하겠다. 그러나 비록 외형적인 면에선 닮은 곳이 있는 듯 하나 그 내용면에서는 모든 것이 判異하다. 그것은 血肉間이면서도 원수였던 “카인·아벨”과 같은 關係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南北韓言論은 그 存在樣式에서부터 역할에 이르는 많은 면에서
게 다른 것이 사실이다. 먼저 存在樣式과 運營方式의 차이부터
펴보기로 하자.

共產主義理論에서는 新聞·放送·通信은 물론 雜誌·영화 등의 모
言論媒體는 政治權力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
政治機構의 일부 또는 그 부속기구로서만 存在·機能하는 것으로
어 있다. 北韓言論도 이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데, 政治權力에 대
批判과 自律的 經營형태를 취하고 있는 南韓言論과는 크게 다르
또 한국은 모든 “매스 미디어”가 私的 所有와 私的 營利事業의 형
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는 大衆媒體의 私有 및 營利事
으로서의 運營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北韓은 모든 생산수
(財貨)은 國家所有와 協同團體所有로 되어 있으며, 言論媒體도 역
그러하다.

國有化·國營化되고 있는 모든 “매스 미디어”는 따라서 兪중
黨과 政權機關의 통제하에서 各級 黨組織·政府機關·各種 勤勞團體
學術團體·靑少年團體·女性團體·“스포츠”團體·軍隊 등의 組織體에
한 機關紙(誌)로서만이 발행되고 있다.

「소련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文明을 쌓아올리기 위해 정신 없이
작한 獨裁制에 있어서, 新聞이 그 機構 속의 하나로 되고 있다.
“플라톤”은 그의 〈共和國〉에 詩人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소련은 어떤 방해가 될 듯한 영향력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2) Kingsley Martin, The Press Public Wants, The Hogarth Press, London,
1947, 日譯版, p. 130.

國家와 言論媒體의 關係 및 그 存在樣式의 특질을 精確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에트體制에서는 國家理論과 “커뮤니케이션”理論은 별개의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론이 있을 뿐이다」³⁾ 라고 한 지적이나 「高度로 조직된 共產主義 “엘리트”로서의 〈黨〉은 國家權力 밖에 있을 때는 그 지도부의 “이데올로기”와 政策路線을 大衆에게 주입 선전하는 매체로서 新聞과 雜誌의 利用價値를 絶대로 重要視한다. 그러므로 公산주의운동은 전통적으로 言論鬭爭 또는 出版活動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黨〉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新聞과 雜誌의 價値는 더욱 크게 평가된다. 〈反革命勢力〉과 鬭爭하고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추진하는 데서 新聞과 雜誌는 中대한 역할을 담당한다」⁴⁾ 는 견해도 公산주의적 敎義와 “커뮤니케이션”理論의 上관관계와 本질을 올바로 파악한 것이다.

역사적·사회적 條件은 불가피하게 “매스콤”의 構造와 성격, 기능과 역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制度的 要因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라는 相異한 두 체제를 갖는 南北韓 言論間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하겠다.

이러하기에 민주주의적 입장에서는 북한 같은 公산주의체제하의 “매스콤”은 단지 御用機關 (kept instrument)에 불과하며 公산주의의 정치

3) Wilbur Schramm, Responsibility in Mass Communication, Harper, N.Y., 1957, p. 81.

4) 梁好民, 〈序文〉, 李相斗 著「마르크스·레닌主義와 言論」汎友社, 1979.

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서만이 動員・利用되며 오로지 宣傳・선
동과 大衆敎化를 위해 봉사할뿐 결코 진실의 보도나 공정한 논평
을 하지 못한다⁵⁾고 비판한다.

한편 北韓과 같은 共產主義的 입장에서는 韓國 같은 資本主義社會
의 “매스컴”은 그 본래의 중요한 社會的 機能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利潤追求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자본가와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 틀의 통제 밑에 買收되고 부패되어 무책임한 報
道와 논평을 한다고 비난한다. 이같은 商業主義新聞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娛樂性」이라는 것도 「쓸데 없는 소리」(twaddle)는 무
가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民主主義體制下의 言論(韓國言論)과 共產主義社會의 言論
(北韓言論)間에는 그 存在樣式에 있어서 共通點이나 類似點보다 差
異點과 대립점이 보다 많고 뚜렷한데, 이같은 경향은 後述하게 될 언
론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南北韓言論은 이같은 存在樣式과 機能의 차이로해서 異質化現象이
深化되어 왔으며, 統一指向的이기 보다는 分斷固着化 내지 分裂指向型
言論의 機能을 다해 왔으며, 지금도 그같은 特性을 堅持하고 있다고
하겠다.

5) Wilbur Schramm, "The Soviet Communist Theory of the Press". Four
Theories of the Press, Univ. of Illinois Press, Urbana, 1973, p. 106.

2. 北韓言論의 現況

가. 新 聞

北韓에는 現在 약 30 종의 日刊紙(中央紙와 地方紙)와 隔日刊紙, 週2回紙, 週間誌, 그리고 많은 下級新聞과 해외홍보용의 英字紙인 The Pyongyang Times 가 있다. 中央日刊紙는 주로 각 政黨·政權機關·社會團體·勤勞團體 機關紙이고 地方紙는 各道黨 및 開城市黨機關紙인 「道日報」이며, 下級新聞은 工場·企業所發行的 「工場新聞」과 각 대학발행의 「大學新聞」이다.

북한 신문중 영향력과 部數에 있어서 첫째가는 新聞은 「共和國言論의 總參謀部」로 일컬어지는 「로동신문」이다. 「조선로동당」中央委機關紙인 이 新聞은 1946년 9월 1일 북조선공산당기관지 「正路」와 조선新民黨(위원장: 金枋奉)機關紙 「前進」이 통합, 題號를 바꾸어 발간한 것이다. 그런데 「正路」는 1945년 11월 1일 공산당기관지로 발간되었다가 1946년 9월 1일 「로동신문」으로 改題·發刊된 것이다.

북한은 1970년 12월 30일 最高人民會議 常任委의 政令으로 당기관지의 최초의 발행일을 記念하기 위하여 11월 1일을 「出版節」로 정했다. 그런데 「로동신문」의 최초발행일은 1946년 9월 1일이기 때문에 「出版節」도 응당 9월 1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68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金日成偶像化政策과 더불어 당활동 및 革命正統性을 역사화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최초의 공산당기관지 「正路」의 첫 발행일인 11월 1일을 「로동신문」의 창간일

로 하고 이날을 「出版節」로 정한 것이다.”

한국에선 최초의 民間新聞인 「독립신문」의 발행일을 기념하여 4월 7일을 「新聞의 날」로 정하고 있는 것과 對照的이다.

「로동신문」다음으로 큰 신문은 「민주조선」인데, 이는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및 政務院(內閣)機關紙이다.

「로동신문」社는 平壤市 外城區域 驛前洞에 있으나, 「민주조선」은 平壤市 牧丹峰區域 仁興洞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1976년 6월 15일 中央人民委員會政令에 의해 「國旗勳章1級」을 받았다.

다음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社勞青: 共青의 후신)機關紙인 「로동청년」은 金星出版社(주로 청소년들의 階級敎養을 위한 도서 및 문예도서를 출판)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특색은 소련의 黨機關紙 “프라우다”처럼” 題號왼쪽에 두개의 國旗勳章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3개신문 이외에 平壤市人民委員會가 발행하는 「평양신문」이 있는데, 이는 「首都의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뉴스를 反映하는」신문으로, 이 신문의 특색은 북한신문중 유일하게 生必需品 등의

6) 李相斗, 「마르크스·레닌主義와 言論」, p. 174.

이같은 歷史改作은 이외에도 허다한데, 1948년 2월 8일의 創軍을 기념하는 「創軍記念日」을 매년 2월 8일로 해오던 것을 1978년 부터는 소위 「抗日遊擊隊」를 創設했다는 1932년 4월 25일을 기념하여 4월 25일로 바꾸었다.

7) 「프라우다」는 同紙第1面 題號 왼쪽에 3개의 勳章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중 2개는 레닌肖像이 새겨진 「레닌勳章」으로, 첫번째 것은 1945년 紙齡 1만호 기념으로, 두번째 것은 1962년 창간 50주년기념(1912년 5월 5일 창간: 5월 5일은 칼 마르크스의 生日, 1922년 창간 10주년 기념일을 제기로 5월 5일을 <신문의 날>로 정함)으로 수여된 것이고, 세번째 것은 「10月革命 勳章」으로, 1972년 창간 60주년 記念日에 수여된 것이다.

廣告를 게재하는 점이다.⁸⁾

이상의 4개신문을 북한에서의 4大紙라고 할 수 있다.

나. 通 信

北韓에는 「조선중앙통신사」가 있는데, 이것은 「黨·政權機關의 공식代辦者」이며 하나밖에 없는 國營通信社이다. 오직 한개만의 通信社가 있는 까닭은 國家의 神經組織인 通信을 完全 장악하고 조종·통제하기 위해선 中央集權體制的으로 單一通信業務體系로 運營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效果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946년 12월 5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直屬으로 「北朝鮮通信社」로서 발족했다. 그후 1948년 10월 12일 최고인민회의常任委員의 결정에 따라 內閣 直屬의 「朝鮮中央通信社」로 改編·改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黨 및 政權의 公式代辦機關으로 存續·機能하고 있다.

本社를 平壤에 두고 있으며 新義州·江界·海州·元山·咸興·清津·沙里院·開城에 支社를 두고 있고 蘇聯의 「타스通信」(TASS)을 비롯해서 세계각국의 通信을 受信하고 日刊 「朝鮮中央通信」과 半月刊 「國際生活」을 발행하며, 日刊 「寫眞通信」, 日刊 「英文通信」·「露文通信」·「佛文通信」·「스페인文通信」과 旬刊 「朝鮮消息」(英·露文)과 「朝鮮中央年鑑」을 발행하고 있다.

8) 북한의 모든 신문에는 「資本主義의 꽃」이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신문의 基本構造의 표현이라 할 廣告欄이 없다. 북한의 신문들만이 아니라 소련의 「프라우다」, 中共의 「人民日報」등 모든 공산권국가의 신문에 廣告欄이 없다. 공산당기관지로서는 일본의 「赤旗」가 유일하게 廣告를 싣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書籍廣告 등이 主고 商品廣告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政務院 直屬의 「朝鮮中央通信」은 「主體思想을 유일한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있는 新型의 主體的 通信報道機關이며, 國內의 新聞·放送·出版機關들의 報道宣傳資料를 提供하는 源泉池」라고 불리고 있다.

「朝鮮中央通信」은 다른 “매스 미디어”에 뉴스를 提供하는 한편 (北韓의 新聞·放送 등 모든 言論媒體는 90% 정도를 朝鮮中央通信이 提供하는 뉴스에 依存한다), 거의 매일 「勞動新聞 概觀」 또는 「로동신문 編輯紹介」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朝總聯 管理下에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중앙통신」의 在外 支社格인 東京의 「朝鮮通信社」에 뉴스를 送信하고 있다. 「朝鮮通信社」는 北韓의 政治·經濟·文化·軍事 등에 관한 뉴스를 受信하고 日刊뉴스紙 「朝鮮通信」(KNS, 日語) 및 隔月刊 資料紙인 「朝鮮通信資料」를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在日朝鮮人 活動動向과 日本國內의 諸事情을 北韓에 送信하는 任務를 함께 遂行하고 있다.

政權創建 30 周年紀念으로 1978년 9월 4일 中央人民委政令으로 「朝鮮通信社」는 金日成勳章을, 사장 李衡九는 「功勳記者」稱號 및 「勞力勳章」을 수여받기도 했다.

다. 放 送

北韓의 放送은 政務院 直屬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밑에 운영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黨·政權의 政策 및 諸般施策과 國內外 情勢를 放送을 통해 대내외에 宣傳·報道하며 「黨과 인민의 목소리」를 代辦하는 放送機關이라는 것이다.

모든 放送局을 指導·監督하는 이 「중앙방송위원회」는 組織·編制

上으로는 政務院에 속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黨中央委 宣傳煽動部の 指示·統制를 받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放送事業體系는 蘇聯의 경우처럼 二元體系라 하겠다.

黨體系는 中央黨의 擔當·管理部署中 宣傳煽動부와 連絡部 등에서 이를 주관할 뿐 아니라 나아가 放送事業에서의 放送業務自體를 사실상 指導·調整한다. 그리고 政務院體系는 通信部가 주관, 放送局의 施設·機材의 管理 및 사무적인 業務를 擔當·運營한다.

이같은 黨體系와 政務院體系는 모두 「중앙방송위원회」에 작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일체의 放送事業은 政務院 直屬의 「중앙방송위」가 管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放送局이 文公部の 指示·統制를 받고 있는 南韓의 放送體系와는 판이하다.

「중앙방송위원회」는 放送局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주로 對內的(國內的)인 放送問題를 다룬다. 따라서 放送되는 모든 내용은 「중앙방송위」의 검열을 거친 것이며, 放送局은 검열된 내용만을 단지 기술적으로 放送할 뿐이다.

「중앙방송위」외에 「평양방송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黨의 對南工作擔當部署가 直接 運營하는 「평양방송국」에 대해 放送業務를 指導·調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北韓의 放送은 이같은 二元體制下에 모두 17개의 短波放送, 25個의 中波放送, 2個의 TV放送網, 非武裝地帶의 확성기 放送, 僞裝黑色放送인 「救國의 소리」(對南 비방방송으로 統革黨 목소리 放送후신) 放送이 있으며 각 道 所在地마다 地方放送局을 두고 里單位까지 有

線放送網을 가설하여 對內 및 對南(海外)放送을 實施하고 있다.

北韓放送은 1945년 10월 14일, 日帝時의 平壤放送局의 機能과 設備을 整備하여 「조선중앙방송국」으로 改稱하고 500 W의 出力으로 放送을 實施했는데, 이것이 北韓에 있어서의 放送事業의 始發이다. 解放當時 北韓에는 平壤·咸興·清津·海州·元山 등 5個所에 放送局이 存在하고 있었다.⁹⁾

北韓의 放送施設을 보면, 라디오放送局의 경우 中央局 2개, 地方局 10개, 特殊局 1개이며, 送信所 17個所, 中繼所 20個所를 設置해 놓고 있다. 라디오受信器는 175萬台에서 2百萬台 사이로 北韓全家口의 3분의 2정도가 라디오受信器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이중 90%는 有線放送受信器로 推定된다.¹⁰⁾

TV放送局은 平壤TV放送局과 開城TV放送局의 2個局이 있는데, 平壤TV放送局은 1962년에 着手되어 69년에 完工되었고(出力은 25kw), 開城TV放送局(100kw)은 對南宣傳용으로 建設되었으며 71년부터 放送을 시작했다.¹¹⁾

平壤TV放送局 開局을 계기로 TV受像機의 普及과 放送要員 養成을 目的으로 日本·프랑스 等地에 技術者를 派遣했다.

北韓에는 ① 平壤TV工場(TV수상기), ② 大同江TV受像機組立工場, ③ 南浦通信機械工場(有線放送設備), ④ 安州通信機械工場(TV中繼材), ⑤ 端川榮譽軍人工場(TV受像機), ⑥ 海州TV組立工場, ⑦ 사리원 TV

9) 文化京郷社史, 文化放送·京郷新聞發行, 1976, pp. 315 ~ 317.

10) 李相斗, 「마르크스·레닌主義와 言論」, pp. 273 ~ 274.

11)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 1972年版, p. 350.

組立工場 등 11個工場이 있으나 年間生産能力은 20萬台이고 普及台數도 約 20萬台에 불과하다.

72년도부터 칼라放映을 하고 있으나 아직 칼라TV受像機는 生産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韓國은 現在 黑白TV의 경우, 年間 6百萬台 生産能力을 갖추고 있고 칼라TV도 1百70萬台的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普及台數도 黑白이 627萬5千7百餘台, 칼라가 13萬6千台(80年末 現在登錄台數)로 北韓과는 比較가 되지 않는다.¹²⁾

「중앙방송위」는 國際放送機構에 가입하고 加盟國들과의 사이에 放送協調의 擴大와 “라디오 프로”의 計劃化 및 放送과 TV技術에 관한 問題들을 國際적으로 討議 發展시키는 事業에 加담·進行시키고 있다.

3. 北韓言論의 機能과 役割

北韓의 言論政策은 金日成이 밝힌 바 있는 新聞觀에 입각하여 推進되고 있으며, 이를 根幹과 源泉으로 하여 言論機能과 役割이 遂行되고 있다.

金日成의 言論觀이 최초로 표명되기는 1945년 12월 17일에 開催된 「朝鮮共產黨 北朝鮮組織委員會」 제3차擴大執行委員會에서 行한

12) 李相斗,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諸問題, 汎友社, 1983, p. 513.

「北朝鮮共產黨 各級黨·團體들의 事業에 대하여」의 報告中 「우리의 課業」이라는 項目에서였다.

「〈正路〉新聞社의 機構를 擴張하고 거기에 有能한 일군들을 派遣하여 新聞의 質을 높이며 그 部數를 5萬部에까지 달하게 하는 同時 日刊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新聞이 集團的 宣傳者·組織者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集團的 煽動者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레닌”의 新聞理論¹³⁾을 본받은 것이라 하겠다.

레닌이후 共產主義 言論에는 大衆宣傳·大衆煽動·大衆組織과 그리고 大衆批判 및 暴露의 機能과 任務가 주어져 있다.”

北韓言論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다.

13) “레닌”은 1902年 3月에 單行本으로 發表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들 運動의 火急한 諸問題」(What Is To Be Done? Burning Questions of Our Movement)에서 全國的 政治新聞인 “이스크라”(Iskra: 불꽃)를 발간하고 이것을 토대로 흩어져 있는 組織의 全國的 統一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全國的 新聞이야말로 全國的 政治組織을 建設하고 核心的인 수단이라는 뜻에서 이를 「集團的 組織者」로 規定하였다. “레닌”의 新聞은 「集團的 宣傳者·集團的 煽動者 및 集團的 組織者」로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反對立場에 있던 “마르티노프”는 「新聞이 黨組織을 만들 수 없다. 그 反對이다」. 「우리 黨은 자치적 編輯局에 黨이 完全히 從屬되는 것에 대해 어떤 態度를 취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레닌의 “이스크라” 組織理論을 비판했다. 그는 레닌의 「新聞은 集團的 宣傳者와 煽動者」여야 한다는 데는 同意했으나, 「集團的 組織者」라는 데는 反對했던 것이다. (李相斗, 마르크스·레닌主義와 言論, p. 51).

14) 毛澤東은 新聞의 機能으로 ① 組織 ② 鼓舞·激勵 ③ 煽動 ④ 批判 ⑤ 推進의 다섯가지를 들었다.

오늘날 北韓言論은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의 「物質的 要塞」와 「思想的 要塞」를 占領하기 위한 大衆動員 및 思想教養의 強力한 武器로 機能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매스 미디어”는 여하히 社會主義 革命과 社會主義建設課業 遂行을 위해 機能하고 服務할 것인가에 北韓의 言論制度·言論政策의 目標와 中心理論이 있다고 하겠다.

北韓新聞이 擔當·遂行하고 있는 任務와 役割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黨報(黨機關紙)인 「勞動新聞」이 1萬號發行記念社說에서 주장한 바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족할 듯 하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黨을 創建하신데 이어 몸소 1945년 11월 1일 黨報 勞動신문을 創刊하셨다. …… 온 社會를 首領님의 思想으로 一色化하는 事業은 全體黨員과 人民들이 오직 김일성 首領님의 思想으로만 武裝하여 김일성 首領님의 思想대로 일하고 生活하는 態度를 가지도록 인간을 개조시키는 事業이다. …… 이 무거운 歷史的 課業을 훌륭히 遂行하기 위해서 思想事業의 有力한 武器인 言論出版이 김일성 首領님의 敎示대로 任務를 遂行하는데 있다.

…… 勞動신문은 김일성 首領님의 革命思想과 敎시를 끊임없이 大衆에게 解說·宣傳해 주며 끝까지 貫철 浸透시키는 것이 最大의 任務이며 영예로운 課業으로 認識하고 있다」.¹⁵⁾

또 「로동신문」 創刊 35 周年紀念報告會에 전달된 黨中央委의 祝賀文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 黨報는 앞으로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黨과 首領을 견

15) 「로동신문」, 1974년 7월 16일자.

결히 옹호 보위하고 黨의 노선과 政策을 앞장에서 관철해 나가는 思想的 旗手가 되어야 한다.¹⁶⁾

金日成은 「人民大衆속에 黨의 路線과 政策을 浸透시키는 基本方法은 說服과 教養이다. 黨은 자기의 政策을 勤勞大衆에게 항상 解說해 주며 黨政策의 正當性을 그들에게 確信시켜야 한다」¹⁷⁾고 하면서 이것을 言論媒體의 役割에 기대했던 것이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北韓의 新聞들은 嚴密한 意味에서의 大衆媒體로서의 新聞이 아니라 黨의 唯一思想, 主體思想을 해설·宣傳하고 김일성 및 金正日 個人崇拜의 黨政策을 弘報하는 「黨策의 메가폰」이요, 「黨策의 侍女」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新聞뿐 아니라 通信의 機能과 役割도 마찬가지이다. 1976년 12월 4일 平壤人民文化宮殿에서 진행된 「朝鮮中央通信」 創刊 30周年紀念報告會에서 中央人民委 서기장 林春秋(現 副主席)는 黨과 政務院의 共同祝賀文을 發表했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朝鮮中央通信社는 主體思想을 유일한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있는 新型의 主體的 通信報道機關이며, 黨과 政府의 立場을 公式的으로 천명하는 믿음직한 代辦者이며, 國內의 新聞, 放送, 出版機關들의 報道 宣傳資料를 提供하는 源泉池이다. …………… 김일성首領을 政治·思想的으로, 理論的으로 옹호 보위하며 …………… 김일성首領이 開拓한 革命위업遂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革命的 文

16) 「로동신문」, 1980년 10월 31일자.

17) 「김일성저작선집」1, p.386.

筆戰士로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¹⁸⁾

이날 記念報告를 한 通信社 社長 金成傑은 「조선중앙통신사」의 基本任務인 ①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세우기 위해 報道·宣傳事業을 強化하고 ② 黨의 唯一思想 教養과 革命教養·階級教養·社會主義教養을 끊임없이 深化시켜 勤勞者들을 김일성首領에게 충직한 革命戰士로 준비시키며 ③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의 기치를 높이 들고 政治煽動과 經濟煽動을 옹기 결합시키며 특히 經濟煽動을 強化하고 ④ 南朝鮮革命으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 報道·宣傳事業을 強化하며 世界革命的인 人民들의 反帝·反美鬭爭을 積極 支持 支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放送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放送은 1945년 10월 14일, “로마넨코” 蘇聯軍 政治司令部에서 각색·연출한 「김일성將軍歡迎 平壤市 群衆大會」를 實況中繼¹⁹⁾하기 위해 동원된 이래 繼續 黨·政權機關의 宣傳·煽動手段으로 動員·活用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국」 30周年記念報告會에서 「조선중앙방송위」와 「함경남도방송위」에 國旗勳章이 수여되고 이 部門從事者 13名에게 「人民放送員」·「功勳記者」·「功勳藝術家」 등의 稱號와 「國旗勳章 1級」 및 「勞力勳章」이 수여되었는데, 이때 (1975년 11월 7일)의 中央人民委政令에도 放送의 機能과 使命을 強調하고 있다.

「黨의 政策을 對內外的으로 널리 宣傳하며 黨과 人民의 목소리를

18) 「内外通信」 綜合版Ⅱ(301號~421號), p. 246.

19) 이 평양群衆大會의 實況中繼를 記念하여 10月の 둘째日曜日을 「放送節」로 정하였다.

代辦하는 報道機關으로서 자기앞에 맡겨진 革命任務를 충실하게 遂行했다. ……………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宣傳活動을 통하여 黨의 方針과 政策을 日常的으로 解說하고 그 正當性을 힘있게 論說하여 黨의 영도밑에 人民이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에서 이룩한 위대한 思想과 經驗들을 널리 紹介 宣傳하는데서 黨員들과 勤勞者들을 永生불멸의 主體思想으로 武裝시키고 黨政策의 관철에로 힘있게 組織·動員하며 革命의 國際的 連帶性을 強化하기 위한 事業에 크나큰 貢獻을 했다」.

이처럼 北韓의 新聞·通信·放送 등의 모든 言論媒體는 西方世界 (韓國) 言論에서 보는 大衆媒體로서의 言論機關이 아니라 黨의 唯一思想·主體思想과 黨政策 및 政府施策을 解說·宣傳하는 道具로서의 機能과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 北韓言論의 特質

가. 機構 및 編制의 特色

북한의 新聞·통신·放送의 기구·편제에 있어 남한言論機關과 다른 것은 첫째 언론체계에 「南朝鮮部」가 있는 점이고 「社會部」가 없는 점이다. 「로동신문」의 기구와 편제를 보면 ①黨生活部 ②理論宣傳部 ③공산주의 교양부 ④공업부 ⑤농업부 ⑥南朝鮮部 ⑦國際部 ⑧寫眞部 ⑨地方書翰部 ⑩財政經理部 ⑪교정부 ⑫편집부 등 12부로 되어 있다. 政治部·體育部·文化部·女性部·調査部 동도 없

지만 이런 部가 담당할 일은 다른 부서에서 맡아 한다.

「南朝鮮部」를 두고 있는 것은 남한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도·논평하기 위해서라 하겠다. 북한言論은 速報性을 사실상 무시하면서도 남한에서 일어난 사태, 특히 反政府데모 등은 즉각 보도·논평하는 속보성과 機敏性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의 언론기관이 1972년 「7·4 共同聲明」발표를 전후하여 「北韓部」 등을 두어 북한관계전담기자와 專門記者養成을 꾀했으나 어느 사이 흐지부지되고만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 하겠다.

북한의 언론기관에는 「南韓專擔部署」와 전문기자가 있는데 반해 남한에는 이것이 없거나, 있는 경우도 有名無實하여 赤十字會談대표단을 수행한 남한기자들의 北韓관계記事나 보도가 不正確한 때가 있고 심지어 북한의 4大 新聞中の 하나인 「로동청년」의 題號조차 틀리게 보도한 실수를 범한적 조차 있었다.

북한에 대한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統一에 선행하는 南北言論人交流나 新聞交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남한언론기관에도 「北韓部」등의 설치·운영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북한언론기관에 「社會部」가 없고 따라서 社會面 記事가 없는 까닭은 否定的인 측면은 알리지 않고 不美한 사건·사고·스캔들·犯罪·非行 등을 은폐하는 한편 모범적인 내용과 肯定的인 면만을 선택하여 보도함으로써 북한이 모든 社會惡이 근절된 地上樂園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 하겠다. 동시에 自己犧牲性·규율성·사회주의적 愛國心·勞動愛護정신 등 이른바 공산주의道德教養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에서라 할 수 있다.

「민주조선」에도 「南朝鮮部」는 있는데, 여기에 ①人民行政部 ②商業運輸部 ③農村經理部 ④報道部 ⑤文化藝術部 ⑥南朝鮮部 ⑦國際部 ⑧調査部 ⑨地方部 ⑩理論宣傳部 ⑪書翰部 ⑫經理部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에도 「南朝鮮報道編輯局」이 있는 점은 역시 같다.

두번째의 특색은 신문사의 책임자인 社長을 責任主筆이라 부르고, 「로동신문」책임주필은 當然職으로 「記者同盟」위원장이 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기구와 조직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나 「支配人」으로 부르고 있으며, 신문사의 長은 「責任主筆」, 방송국의 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貿易部門 등 對外關係를 고려해야하는 분야에선 社長의 직함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의 책임자물 「社長」으로 부르는 것은 이때문이다.

나. 體制 및 內容上의 特性

「로동신문」은 年中無休이며 원칙적으로 1일 6면發行이나 黨報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增面한다. 이 점은 “프라우다”나 「人民日報」도 마찬가지이다.

「로동신문」의 紙齡(累計)은 1986년 1월 1일 현재 1만 4천 186號가 된다.

「로동신문」이외의 신문들은 보통 1일 4면이며 週6회발행이고 「로동신문」의 複寫版이라 할 수 있다. 신문의 體制上 내용상의 특

색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新聞面數가 매우 적은 점이다.

“뉴욕 타임스”가 1일 평균 60~64면(日曜版은 200면), “더 타임스”가 24면(土요일은 18면), 「朝日新聞」이 朝夕刊 합쳐 36면 등을 발행하고 있는데 비해 1일 6면은 너무 적다. 南韓의 1일 8면과 비교하면 記事面에서는 비슷하다(남한신문은 廣告가 평균 2면 정도 차지한다).

②各面의 구별과 특징이 없는 편집을 하고 있다. 북한신문은 國內政治面·국제정치면·경제면·스포츠欄·문화면 등의 구별이 분명치 않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1면에서 시작한 기사가 몇면에 걸쳐 계속되기도 한다.

③社會面과 娛樂面의 기사가 없는데 사회면 기사가 없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으나, 娛樂에 관한 것도 全無하다.

만화·만평·풍자란은 물론 없고 고정란의 스포츠記事나 演藝記事 등도 없으며 連載小說도 없고 日氣豫報조차 없다. 다만 農業勤勞者 同盟기관지인 「농업근로자」紙에만 일기예보가 실린다.

④廣告가 없다. 그 까닭은 廣告할 자료도, 또 필요도 없기 때문이며, 모든 物品이 統制配給制度下에 있는 탓이다. 북한에서는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가들이 보다 많은 이윤을 짜내기 위한 경쟁의 수단으로 리용한다」²⁰⁾ 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매스 미디어”는 西方世界の 商業主義 新聞처럼 판매경쟁

20) 「경제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p.387.

이나 部數擴張을 위해 無價紙를 뿌릴 필요도, 取材경쟁을 할 필요도, 독자의 口味에 맞게 흥미위주로 편집할 필요도 없다. 配布處와 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각종신문은 學習會나 讀報會의 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김일성의 사진과 敎示가 실린 신문을 소홀히 다루는 행위는 공산주의적 道德性和 思想性조차 의심받게되는 행위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5 . 統一指向型 言論像의 모색

같은 分斷國家이면서도 東西獨간에는 각종交流가 행해지고 있는데 반해 남북한간에는 “코뮤니케이션”의 回路가 차단·폐쇄되고 있다.

東西獨간에는 경제교류, 郵便·교통교류, 越境교통 및 人的 往來, 文化·교육·학술·“스포츠”·출판물·言論人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電話通路가 있고 “텔렉스”通信의 길도 열려 있고, 書信·小包 교환 등의 통로도 있다.

또 新聞·잡지의 相互交換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獨逸語로 동서독의 하늘을 오고 가는 라디오와 TV의 電波通路가 있다.

出版物교류중 신문에 관한 것을 몇가지 들여보면 1964년 4월 27일 東獨의 국가평의회위원장 “발터 울브리히트”가 西獨과의 制限된 新聞交換을 계의했는데, 동독의 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Neues Deutschland)를 서독에서 판매할 수 있게하고 西獨의

“디 자이트”(Die Zeit)나 “쉬르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 등 몇가지 서독신문을 동독에서 팔 수 있게하자고 제의했다.

그해 6월 11일 동독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는 서독의 「디 자이트」에 실린 논설과 “쉬르도이체 자이퉁”에 실린 기사를轉載하였고, 이 두 신문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에 게재된論說과 기사를 실어 事實上的 記事交換을 했다.²¹⁾

東獨日刊紙의 서독에로의 자유로운 輸入이 실시된 이후 1969년 중반까지는 약 10%, 그후는 약 3%의 구독자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972년 체결된 基本條約과 관련하여 합의된 중요한 규정 중에는 쌍방간의 신문·라디오·TV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文書 39」이며 「文書 3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書信交換은 1972년 11월 8일 獨逸聯邦共和國(서독) 연방수상청 “에로 바르”次官과 독일민주공화국(東獨)내각성 “미카엘 콜”次官간에 교환한 것이고, ②記者활동보장에 관한 서한교환과 관련한 議定書에 대한 兩獨聲明이며 ④假調印時 記자의 활동보장에 관한 합의사항을 西 “베를린”에 적용하는데 대한 쌍방의 성명이다.

基本條約체결후 TV분야에서는 보도와 取材활동을 계속하면서 每年別로 방송용 또는 방영용 製作品을 상호입수하기 위한 접촉이 진행되었다.

21) 李相斗, 現代政治와 政治思想, 太陽社, 1985, p.389.

1973년 2월초, 서독과 동독은 상호집속하여 西獨과 西“베를린”의 라디오·TV 방송국의 34명의 편집자들이 동독에서 활동하기 위해 常駐特派員의 신임장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 이후 兩獨언론인은 상호 자유로운 取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國家安保와 犯罪방지, 국민건강보호, 他人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등을 위해 제정·公布한 制限法規은 준수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서로 주고 받는 文化協定만은 요원했다. 물론 文化協定체결 이전이라해서 文化交流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西獨 어디를 가나 東獨에서 출판되는 책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書店을 찾을 수 있다. 學術자료 교환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독일문제〉研究에 관해서는 義務的이라할 만큼 연구업적을 주고 받는다.……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 얼마전 東西獨국경지대의 동독住民들이 서독TV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동독당국은 西獨TV中繼塔까지 건설해 주었다」²²⁾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이기에 東獨주민에게 서독에서 放映하는 「刑事코름보」·「코작」 등의 搜查物이나 西部物이 인기가 있고, 西獨의 성직자 등 근엄한 일부시청자들은 西獨TV의 상업주의적 低俗한 “쇼 프로” 등을 기피하면서 東獨TV가 방영하는 기록영화나 文化映畵 등을 즐겨 觀聽한다고 한다.

西獨의 “빌리 브란트”에 의한 東方政策 이후 동서유럽 및 東西獨간에 이루어진 平和共存의 정세하에서 동서독 “매스콤”은 “이

22) 「崔炳權, 和合의 새해……오늘의 東西獨(上)」, 朝鮮日報, 1984년 4월 12일자.

데올로기”적인 對立關係를 유지하면서도 相互誹謗·中傷을 완화·지양하고 있으며 그 報道내용과 論調가 크게 改善되었다고 한다.

東西獨의 이같은 매스콤을 포함한 상호교류는 같은 分斷國家로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南北韓관계의 앞으로의 개선과 統一指向 모색에 적지 않은 示唆를 준다.

統一文化視角에서 남북한언론관계의 定立과 언론교류를 위해 필요한 몇가지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하겠다.

첫째, 서로의 實像과 虛像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남한의 경우, 북한전문記者의 양성에 힘써야겠다.

둘째 북한事情에 대한 국민들의 바른 이해와 인식을 위해 “매스콤”을 통한 과학적이며 심층적인 情報소개와 보도·논평을 하도록 “매스콤”機關자체 및 정부시책의 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가능한 한 상호비방·중상을 自制하고 축소·완화하는 일이다. 이미 1972년 11월 11일과 1973년 2월 1일 북한측은 對南비방·中傷中止를 실시한 일이 있으나, 이것을 平和攻勢·선전공세를 위한 政略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對決과 不信·反目を 끝내고 민족적 和解·和습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심화되어가는 民族異質化를 억제·극복하고 民族同質性을 회복·확립하는 방향으로 남북한 “매스콤”이 기능해야 하며, 統一指向型 言論像 모색·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일이라 하겠다.

